

## “부르짖음과 응답”

여는 기도 (인도자)

### 소그룹 언약

인도자와 참여자가 함께 소그룹 언약을 읽습니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내어 소그룹 언약을 함께 만듭니다.

**성경 본문** :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2-23)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족장들입니다. 사라, 하갈, 리브가, 그리고 레아 와 몇몇의 여족장들은 아마 덜 친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4)”라는 언약을 이러한 여성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사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한 이삭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리브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임신중에 겪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 감히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부르짖음에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예언자적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장남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장자권에 따른 문화적 지배구조를 뒤집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나 다른 여성이 아닌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임신하고 힘없는 여인인 리브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가 들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녀에게 이러한 지식을 맡기 실까요? 때가 찾고, 리브가는 쌍둥이 형인 에서와 에서를 잡고 나온 동생 야곱을 출산하였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은 좋아하고 이삭과 에서는 속였기 때문에, 리브가를 상황 판단이 빠르고 교활한 여인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성 족장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를 묻거나, 그들이 했던 잘못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물어보나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기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아프리카인들이 버지니아 주 햄튼(Hampton)에 있는 포인트 컴포트(Point Comfort)에 1619 년에 도착했을 때, 당시 유럽인들의 지배적 문화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인들은 사람보다 낮게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미국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았고, 자신이나 후손을 위한 자유의 희망없이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감리교인이며 노예 소유주였던 William Armistead, Mary Dandridge 와 David Minge 는 자신들의 노예로 있던 형제들과 자매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는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시대의 인종 차별적 사회의 규범들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리브가의 내적 투쟁 그리고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토의를 위한 질문들 (비디오 시청 전)**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적이 언제입니까?

## 비디오 시청

### 토의를 위한 질문들 (비디오 시청 후)

노예제도가 초기 미국 감리교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떤 느낌/반응/생각이 됩니까?

교회가 이러한 과거로부터 어떠한 영감 또는 인도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 행동하는 제자도: 어려운 질문을 하는 힘

리브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같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삶에 있는 깊은 분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혼돈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것은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8)

###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연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면하기를 요구하는 가족, 이웃, 또는 동료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당신과 다르거나 당신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와 소통하기를 성령님께서 부추기시는 것(nudge)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마치며

의견, 질문, 그리고 공지사항을 나눌 시간을 갖습니다. 인도자나 참여자 중 한 분이 마치는 기도를 합니다.